"여수시의회 의장 선거방식 개선을"

시민연대회의, 교황선출식 대신 일반투표 주장

"야합·금품살포 등 불·탈법 여지 많다"

다음달 30일 하반기 선거 … 논란 일듯

'교황선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가 일반 투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8일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여수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현행 교황선출방식을 버리고 민주식 일반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에도 '여수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황선출식 투표 방식을 버리고 일반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의회 일부의원들은 다른 지역의회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일반투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공개적인 정견 발표 후 의원들이 각각 투표하는 일반투표로 변경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투명한 의장선거가 이뤄져야 야합이나 금품살포 등 불·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황선출방식과 일반선거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의장선거형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오던 지방의회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전서구, 전주시, 진주시 의회등은 이미 일반투표방식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보성 웰빙 햇감자 본격 출하 보성군 회천면 들녘에서 햇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보성지역에서는 올해 1천152농가가 926.3ha에서 2만3천157t의 감자를 수확할 예정이다. 〈보성군 제공〉

광양항 무단 입출항 선박에 변상금

사고 위험 높아 관리대상 지정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광양항을 무단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여수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올들어 20일 현재 항만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입출항한 선박은 27척, 104건에 달한다. 이들 선박들은 대부분 150t 미만의 소형 선박들로 각종 항만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운반하고 있다.

이들 무단 입출항 선박들로 인해 대형 항만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따라 항만청은 앞으로 무단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해 운항 준칙을 지키는 지 감독할 계획이다.

항만청 관계자는 "광양항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무단 입출항 선박에 대한 철저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부동산경기 호황

여수시의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 확정된 후인 지난해 12월 여수시에 접수된 부동산 매매 신고는 1천134건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의 730건과 783건에 비해 50% 가량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엑스포 확정후 거래 꾸준히 증가

1월 1,336건서 4월 1,832건으로

지난 1월 1천 336건이던 부동산 매매 건수는 3월에 1천 480건(13.2%)으로 늘었고 4월엔 1천 832건(23.8%)으로 증가했다. 특히 토지 매매 건수의 경우 1월 880건에서 3월 1천 15건(19.6%)으로 20% 가량 증가했고 4월엔 1천 432건(41.1%)에 달했다.

또한 토지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10~20% 가량 상승했고 토지의 경우 개발 예상 주변 지역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한국형 구축함 해군 왕건함 공개

오늘·내일 이틀간 여수신항 북방파제서

한국형 구축함사업(KDX-2)으로 실전 배치된 4천200t급 해군 왕건함〈사진〉이 30·31일 이틀간 여수항에서 공개된다.

해군은 바다의 날을 앞두고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수신항 북방파제에서 왕건함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지난 2006년 5월 진수된 왕건함은 대공 방어와 지상작전 지원, 대잠수함 전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산 대함 미사일 SSM-700K와 SM-2 대공 미사일, 5인치 함포, 일명 골키퍼로 불리는 근접방어무기(CIWS)로 무장하고 슈퍼링스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다. 전장 150m, 전폭 17m, 최고속력 30노트다.

해경도 29일에 이어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항에서 제주해경 소속 3천t급 태평양 2호를 공개한다. 태평양 2호는 길이 110.5m, 폭 15.4m, 최대속력 18노트로 지난 1998년 진수됐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률 전국 최고

141대중 120대 친환경

순천시의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141대 중 85.1%인 120대가 천연가스로 운행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 중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률이 가장 높다.

청정연료로 불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데다 오존유발 물질도 경유버스에 70%이상 저감되며, 소음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순천시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도록 시내버스 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구례 광의면 보건지소 신축

구례군 광의면 보건지소가 지난 26일 신축됐다.

광의면 보건지소는 지난해 11월 5억9천500만원을 들여 353.4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치과와 건강증진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光州日報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본	부	장	김동호
			지광현 차장(보성)
고	흥	주	재 주각중 부국장
여	수	주	재 박양규 부장
순	천	주	재 김진수 차장
광	양	주	재 김춘호 차장